

통영에 60kW급 태양광발전 건설

통영시, 3개 섬에 12억원 투입 ... 석유의존 벗어나 24시간 전력공급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남 통영의 3개 섬에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면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통영시에 따르면, 육지면 초도와 한산면 장사도에 9월부터 5-10kW급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들어가 올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통영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유인도인 육지면 국도에는 60kW 수준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9월 준공된다.

3개 섬은 상주인구가 적은데다 육지와 수십km 이상 떨어져 있어 송전탑으로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비싼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을 통한 자가발전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지만 태양광 발전설비가 완공되면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초도에는 1가구 2명, 국도에는 14가구 30명, 장사도에는 2세대 5명이 살고 있다.

3개 섬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는 국·도·시비를 포함해 12억원이 투입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22>